

제 285 회

제 3 차

서천군의회본회의회의록

서천군 의회사무과

2020 년 10 월 16 일 (금) 10시 00분

의 사 일 정 (제3차 회의)

1. 군정질문

부 의 안 건

1. 군정질문(강신두 의원, 조동준 의원, 이현호 의원) 2

○의장 나학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서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군정질문(강신두, 조동준, 이현호 의원)**
(10시00분)

○의장 나학균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강신두 의원님, 조동준 의원님, 이현호 의원님 순으로 한 분씩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고 의원님들의 질문이 모두 끝난 후, 군수로부터 총괄 답변을 듣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신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 의원

안녕하십니까? 부의장 강신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나학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행복한 서천을 만들어 가시는 노박래 군수님과 이교식 부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계속되는 코로나 19로 인하여 사회적, 경제적으로 모두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군민 여러분의 노력과 맡은바 책임을 다하고 있는 공직자 여러분들께 먼저 위로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군민의 생명과 안전, 삶의 질 향상과 주민소득 증대를 위하여 몇 가지 군정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서면 도둔지구 연안정비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금년 6월에 확정 고시된 제3차 연안정비기본계획이 서면 지역주민들의 숙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도둔지구가 243억 원 규모로 반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지난 8월 태풍과 집중호우 등 기상악화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도둔지구 역시 해일성 풍랑 및 강풍으로 해안도로 옹벽 파손과 해양쓰레기가 도로까지 덮치는 등 지역 주민들이 많은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제3차 연안정비 기본계획에 반영된 도둔지구 연안정비사업이 신속히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군수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둘째, 기존 서래야 단지 외 9개 읍·면 단지 추가 지정과 서래야 브랜드 구축 질문입니다.

우리군은 미작중심의 군으로 총 농업소득의 65%가 벼농사에 치중하고 있는 전통적인 쌀 농업군입니다.

하지만 쌀시장 개방과 1인당 쌀 소비량 감소에 따른 잉여생산 물량이 증가함에 따라 쌀값의 불안정과 각 지자체간 쌀 브랜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미질 좋은 삼광벼를 서천군 농수산 공동브랜드 ‘서래야’ 브랜드 품종으로 선정하여 우리군 벼 재배 면적 10,055ha의 10%인 약 1,000ha정도의 서래야 단지를 구성하여 서천쌀의 위상을 높이고 서천군 전체적인 미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래야 단지는 미질관리와 단지 운영의 편의성 때문에 서천, 마서, 화양, 기산 등 4개 읍·면에 한정되어 단지를 지정·운영하여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나머지 9개 읍·면의 농가들이 형평성 문제와 군의 농정업무에 불만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래야 단지를 다른 9개 읍·면에 구성하여 신청하면 선정해 주실 의향이 있으신지 묻고 싶고, 어느 정도 자리 잡은 서래야 브랜드 외에 미질이 좋고 병해충에 강한 우리 지역의 재배 선호도가 높은 품종을 선정하여 군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서래야 브랜드 재배 단지를 구축하여 친환경서래야 브랜드 외에 가격과 품질을 무기로 다양한 소비층을 겨냥한 일반 고품질 단지를 구성 할 수 있는지 군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셋째, 가축분뇨 공동 자원화 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가축분뇨에 따른 환경민원 및 분뇨처리에 어려움이 있는 우리군도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사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사업이 두 가지 방식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공동자원화는 사업비

도 많이 지원이 되어야 하고 액비 방류시설로 행정에서 사후 관리를 해야 하는 등 사업추진에 따른 사후관리비가 지속적으로 행정에서 지원하는 방식이어서 우리군 재정 부담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진하는 공동자원화는 사업 운영자가 사후 관리하는 방식으로, 두 사업을 비교할 때 우리 군에서는 액비저장시설과 지속적인 재정을 투입하여 환경부 사업보다는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현재 서천축협에서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에 관심을 갖고 환경부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내 상황을 보면 논산계룡축협과 금산군을 제외하고는 전문 민간업체에 위탁사업을 하고 있는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환경부 및 농림축산식품부에는 2022년도 공모사업으로 선정해도 설치·운영하는데 2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하며, 그동안 축산농가들이 분뇨처리에 막대한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나 민간업체를 신청을 받아 우리군에서 허가만 된다면 바로 시작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군에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넷째,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 사업의 지원대상을 보면 수급자, 차상위 계층, 일반저소득 가구 등에 단열, 창호공사 등 에너지효율개선 시공과 보일러 지원, 냉난방기 보급 등 가구당 200만 원이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2019년도 우리 군의 사업 현황을 보면 인근 타 시군보다 많은 양의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9년도의 경우 총 424가구에 단열, 창호공사, 보일러, 에어컨 설치, 선풍기 보급 등 8억 3,000만 원의 사업을 실행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올해도 9월 3일 기준으로 569명을 추진하여 충청권에서 가장 많이 신청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본 의원이 하고 싶은 말은 담당 직원들의 적극적인 업무 태도입니다.

본 의원은 올해도 읍·면사무소를 다니면서 사업의 효용성을 홍보하면서 담당 직원님들에게 적극적인 업무 추진을 주문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부 읍·면을 제외하고는 형식적인 추진으로 일괄하고 있습니다. 읍·면별 신청내역을 살펴보면 확연히 그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적극적인 곳과 아닌 곳. 읍·면에 확실하 나와있습니다.

지난 7월 사회복지실의 자료에 따르면 폭염 대비 독거노인이 5,581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외에도 수급자, 차상위 계층, 일반저소득가구 등 지원대상 가구가 많으리라 예상됩니다.

본 사업은 우리군의 예산이 한 푼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순수 국비사업으로 대상가구가 공직자의 업무대만으로 지원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직자들이 본연의 업무 추진으로도 충분히 힘들다는 것을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주민들을 위해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신다면 내 부모, 내 형제가 더 나은 환경속에서 삶의 질이 향상되는 것이고, 총체적으로 군민의 복지향상을 도모하는 것이라 생각되어 상급자나 실·과장에게 매달려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어떤 공직자는 에너지재단에 전화를 하여 “우리도 바쁜데 이런 일까지 다 하라고 하느냐?”라고 했다고 합니다. 참으로 실망스럽고 안타까운 마음뿐입니다.

대상가구가 본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말은바 업무를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무원을 포상하여 더욱 주민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도록 ‘1호봉 특별 승급’을 추천하는데 군수님의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다섯 번째, 등산로 주변 각종 시설물 및 마을 야외운동기구 관리 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서천군에 개설된 등산로는 9개소에 54.57km이며 이곳에 설치된 운동기구나 의자 등은 전체 현황조차 파악되지 않고 일부는 망치되거나 관리가 되고 있지 않아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몇 년 동안 생활체육 붐을 타고 마을회관 주변이나 마을 어귀의 간이공간에 우후죽순처럼 설치되기 시작한 야외운동기구는 2018년 자료에 의하면 137개소에 488대에 달하고 있으나 올해는 현황 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편 일부 운동기구는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파손된 채 오랫동안 방치되거나 고장이 나서 사용 중에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등 지역 주민들의 이용률이 떨어지고 있으며, 1대당 200~300만 원으로 고가의 예산을 들여 설치되어 예산낭비의 주범이기도 합니다.

이렇듯이 관리주체가 불투명한 실정으로, 시설물 등에 대한 전수 조사를 통한 전담부서 지정 및 예산확보를 통하여 안전하게 야외 운동기구를 이용할 수 있는 전체적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여섯 째, 군유림 활용방안과 소방도로(임도)관리에 대한 질문입니다.

판교면 상좌리 산104번지 일원에 면적 110ha의 군유림이 1998년부터 2009까지 토석채취(5.6ha) 만료 후 유희부지로 관리가 되지 않고 방치되어 있으며, 채석당시 사용하던 컨베이어벨트 등 장비가 주변에 방치되어 형식적인 출입차단으로 보기 흉할뿐만 아니라 단일한 관리로 인한 안전사고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채석당시 임야 중 3만여 평이 산등선으로 분류되어 그 사이에 2만여 평은 평지가 조성되었고 그곳에서 주변 경관을 내려다보면 활용 방안이 없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산림보호구역이라 개발허가가 어렵다는데 본 의원은 그곳 절개지에 요즘 각광을 받고 있는 암벽등반 시설 등 평지에 다양한 체육관광 휴양시설을 겸비한 레포츠시설 단지가 조성된다면 판교와 종천 내륙권 지역 경제 활성화와 서천군의 발전 동력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서천군의 각종 시설사업이 토석채취로 서천군 임야가 훼손되는데 분류된 3만평(토석 700만 루배) 토석채취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해 평지 2만 평과 3만 평의 면적이 5만여 평

이 함께 개발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산림보호 구역이지만 목적사업이 확정되면 토석채취가 불가능한 것도 아니라 판단되는데 적극적으로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종천저수지 주변 판교면 상좌리에서 비인면 성산리로 연결되는 임업용 도로 일부 구간이 비포장 되어 있어 차량통행과 불편과 사고위험을 초래하고 있음에 따라, 임야 임도 관리에 개선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군수님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나학균

강신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동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준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서천군민 여러분! 나학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노박래 군수님과 이교식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조동준 의원입니다.

이와 함께 군정에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해주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으로 역사상 유례없었던 어려움을 경험하며 수개월여를 힘겹게 버텨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 지구적 재앙이 하루속히 종식되길 누구나 간절히 염원하고 있음에도 쉽게 떨쳐지지 않고 있음에 더욱 큰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다행히 우리 서천은 많은 분들의 노력과 군민들의 협력으로 감염 확산을 허용하지 않으며 지켜나가고 있지만, 이 또한 하루하루 살얼음 위를 걷는 긴장의 연속이어서 한순간도 방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코로나19는 단순한 감염병 확산이라는 현상을 떠나서 확산의 과정과 파장, 그리고 그 이후에 대한 사회의 많은 변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당연히 우리 행정과 정책의 방향 또한 큰 틀에서 전환되어야 한다는 시사점을 주고 있습니다.

군민의 건강과 안전, 경제 위기에도 든든한 사회보장과 기본소득, 사회 트렌드에 맞는 산업구조의 변화, 물질적 성장을 넘어 삶의 질 향상과 행복추구 등 함께 이를 위한 정책적 전환과 예산의 안배와 재정운용 등이 골자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코로나 이후에 대한 고민과 논의가 많은 곳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이러한 점을 각별히 인식하고 코로나 이후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과 대응방안을 하루속히 찾고 이에 따른 정책의 전환을 실행해 나가 줄 것을 주문 드립니다.

이 점은 특정 분야와 부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므로 군정 전반에 걸쳐 군수께서 진두지휘 해 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 드립니다.

그럼 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군 아이들의 건강한 몸과 정신, 나아가 생활체육 활성화의 밑거름이 될 학교체육 지원 확대와 활성화 대책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우리 군은 지난해 제71회 충남도민체전을 성공리에 치렀습니다. 5만 5천여 군민이 한마음으로 준비하고 일궈낸 결과로 대내외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고, 이를 통해 많은 군민들이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자긍심을 얻고 화합의 분위기가 조성되어 침체된 우리 군에 활력소가 되기에 충분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그동안 충남에서 최하위권에 머물던 대회성적도 역대 최고인 5위에 오르며, 개최지로서의 자존심을 지킬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긍정적인 면에도 불구하고 지난 도민체전의 개최는 우리에게 많은 과제를 남겨 주었습니다. 체전을 치르기 위해 보강한 많은 체육시설의 유지관리 문제, 개최지로서의 이점과 선수영입 등 특별대책으로 상승한 성적의 유지 등이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군수께서는 올해 조직개편을 통해 체육사업소를 신설하고 스포츠마케팅을 강화하는 등의 조치를 했습니다.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을 일원화 한 통합체육회가 출범하였듯이 체육인프라와 함께 주민들의 생활체육 활성화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 중에서도 아이들 때부터 체육활동을 적

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보급하고 성인 스포츠클럽과 연계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선진국일수록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놓여진 우리 현실은 초라하고 미래가 우려스럽기 그지없는 형편입니다.

71회 도민체전에서 우리 군 선수단이 획득한 종합점수 2만 1,700점 중 우리 학생들이 출전하여 획득한 점수는 1만점에 가까운 9,900여 점으로 파악됐습니다.

실업육상팀의 전국체전 성적을 빼면 성인들이 참여한 일반부와 거의 비슷한 역할을 한 것입니다.

반면 이러한 역할에도 불구하고 단적인 예로 우리군에서 학교체육 육성을 위해 학교에 직접 지원해주는 예산은 3천만 원으로 충남 전체 시군 중에 꼴찌입니다.

2억 6천의 서산과 2억 5천의 당진에 비해 9배 가까이 적고, 군단위 중에서도 군세가 크게 차이하지 않는 부여, 홍성, 태안이 1억 4~5천으로 4~5배 차이가 납니다.

학교와 학생, 군세 면에서 훨씬 작은 청양의 3,450보다도 적다는 점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군수께서는 가족행복도시를 주창하셨습니다. 모든 계층과 세대, 연령에 상관없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목표인줄 믿습니다.

비단 체육 분야뿐 아니라 미래의 근간이 되는 우리의 아이들에 대한 정책과 예산의 홀대가 여전히 우리 지역 곳곳에서 보여집니다.

이는 예산의 문제가 아니고 관심의 문제입니다. 군수께서는 이제라도 작고 낮은 곳에 눈을 돌려 더 큰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우리 아이들에게 관심을 가져주시길 당부 드리며, 미흡한 학교체육 지원확대와 활성화에 힘써주시길 용의가 있는지 답해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군의 효과 없는 출산장려 정책의 문제점과 그 대안 마련을 촉구합니다.

대한민국은 전 세계적으로 출산율 저하가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나라로, 이미 2018년 0.977명, 2019년 0.92명으로 전체 합계 출산율이 1명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우리 군은 어떨까요? 단순 출산율로 보면

지난해 1,047명으로 전국 평균보다는 간신히 나은 편이나 충남 평균 1,112명보다 낮고 계속해서 낮아지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출산율의 저하보다 실제 출생자 수의 추이를 보면, 우리 군이 왜 지방소멸의 위험이 높은 지역인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 군의 신생아는 174명이었습니다. 이 숫자는 정확히 10년 전인 2010년 350명에서 반토막이 난 숫자이고, 20년 전인 2001년 태어난 648명의 1/4 수준입니다.

올해도 8월말 현재 출생자 수는 134명으로 지난해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어 안타깝지만 '아이 낳기 좋은'이라는 구호를 붙여 많은 정책을 내세운 것이 무색할 정도로 우리 군의 출산장려 정책은 효과가 없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군의 출산장려 정책 중 대표적인 것이 출산장려금입니다. 현재 우리는 첫째아 출산 시 100만 원을 시작으로 둘째 200, 셋째 300, 넷째 500이며 다섯째부터는 1,000만 원, 여섯째 1,500만 원을 4년에 걸쳐 분할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2005년 첫째·둘째 30만 원, 셋째부터 공히 80만 원을 지급하기 시작한 이후, 2017년 현재와 같이 대폭 증가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정책 시행 15년이 흐르는 동안 실효성 없이 급감하는 출생아 수를 제어하지 못한 것입니다.

전국 거의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도입하고 있는 출산장려금이 뚜렷한 효과가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곳이 출산장려금의 효과를 얻지 못한 것은 아닙니다. 전남 해남의 경우 대폭적인 출산장려 정책을 편 결과 합계출산율이 최고 2.4까지 오르는 등 출산율 전국 1위를 7년간 수성했고, 2019년도에는 전남 영광군이 해남군보다 더 앞선 정책으로 합계출산율 2.54를 달성해 해남군을 제쳤습니다.

물론 단순 합계 출산율의 상승이 인구증가와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수년간 출산율 1위를 기록한 해남의 경우도 지속적인 인구감소를 억제하지 못했기 때문에 출산장려정책의 한계로 지적되기도 합니다.

10가정에서 3명씩 아이를 낳으면 출산율은 높지만 총 출생아수는 30명에 그치는 반면, 50가정이 2명씩 아이를 출산할 경우 출산율은 낮지만 총 출생아는 100명이기 때문에 인구 추이에 훨씬 더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은 출산장려금이 출산을 꺼리는 부부에게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유인책으로 작동되기 위해서는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1명의 아이를 키우기 위한 비용을 추산하고 그리고 1명을 바닷이 넘기는 출산율을 감안할 때 첫째와 둘째, 셋째까지 출산하는 것이 합리적인 기대입니다.

지금처럼 넷째 출산에 500, 다섯째 출산에 1,000만 원을 준다면 이것 때문에 넷째, 다섯째까지 낳을 부부는 극히 소수입니다.

많은 부부는 첫째를 낳고 둘째를 낳기 위해 고민하고 둘째에서 셋째를 낳기 위해 더 많은 고민을 합니다. 둘째도 안 낳고 있는데 다섯째에 1,000만 원을 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 정책이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적재적소에 적용되어야 합니다. 물론 예산의 부담이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저 생색내기용 정책이 아니고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다면 제대로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현재의 출산장려금 실효성 증대를 위해서 둘째 아부터 최대금액으로 상향하고 셋째, 넷째 등도 둘째 아와 같은 금액으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밖에도 여전히 부족한 육아환경 지원, 출산율 제고의 출발점인 청년층, 특히 가임기 여성에 대한 일자리 등 대책도 지금보다 더 전향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군수께서는 효과없는 출산장려정책의 제고를 위한 방안에 대해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세 번째 질문은 최근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는 초경량 비행장치, 드론과 관련하여 우리 군의 활용성 제고와 활성화 방안에 대해 묻겠습니다.

2018년부터 올해까지 우리 군에서는 농업용 드론 110대를 농민들에게 지원해 방제 등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대규모 연합

공동방재단을 꾸려 무인헬기, 방제차량과 함께 드론이 한 몫을 톡톡히 해내고 있습니다.

이렇듯 드론의 활용은 우리 군의 경우 아직까지 농업분야에 주를 이루고 있지만, 점차 그 활용범위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충남도가 추진하는 드론영상 실시간 중계시스템 구축사업을 우리 군에도 도입해 운영하는 등 개인 취미를 넘어 재난, 안전 등 다양한 분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드론의 보급과 활용은 전세계적인 추세이며, 이와 관련한 드론산업의 전망에서도 국토교통부 발표에 따르면 2016년 전 세계 드론 시장의 규모는 7조 2,000억 수준이었지만, 2022년에는 43조 2,000억으로, 2026년에는 90조 원 이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2013년 정부에 신고된 드론 수는 193대에 불과했지만, 2019년에는 9,342대로 40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도 드론을 '8대 핵심성장 산업'에 포함하고 올해 드론 관련 연구개발에 926억 원을 투자하는 등 선발주자 따라잡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정부는 공공기관이 주도하는 드론활용 사업을 통해 민간드론 개발 및 서비스업 활성화를 이끌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공공건설, 하천관리, 산림보호, 수색 및 정찰, 에너지, 국가 통계 등 공공사업 분야에서 5년간 3,700여 대의 드론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며 이를 통해 3,500억 원 규모의 시장 창출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책은 선도적이어야 합니다. 우리 군은 몇 해 전 드론 클러스터 사업을 야심차게 준비했다 수포로 돌아간 적이 있습니다. 면밀한 준비를 통해 접근하지 못했던 점이 아쉽습니다.

많은 자치단체에서 드론 산업의 전망을 보고 공격적인 정책 개발에 나서고 있습니다. 활용에 그치지 않고 산업으로 연계해 지역경제에도 도움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련 사업의 유치와 활용성 제고, 전문 인력 양성 등 점검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정부는 확대되는 드론의 활용과 보급에 맞춰 규제 또한 강화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최대 이륙중량 2kg이 넘는 드론에 대해서는 기체를 신고해야 하고 250g만 넘어도 드론을 조종하기 위해서는 사전 온라인 교육 이수가 의무화 되는 등 관리체계가 정비됩니다.

우리 군도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아직 드론 분야의 잠재력이 충분한 점을 감안해서 드론의 활용성을 선도적으로 제고하고 어느 지역보다 다양화 될 수 있도록 활성화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적극적으로 수립해 줄 것을 군수께 제안드립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군에는 현재 모두 23개소의 어린이집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전체 정원 1,400여 명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아이들의 수는 837명으로 정원 충족률이 겨우 60% 정도에 머물고 있는 형편입니다. 현원이 20명도 안 되는 곳이 10여 개에 이르고 있습니다.

도내 어린이집 현황을 보면 19년 기준으로 천안이 660개로 가장 많고 인구가 가장 적은 청양 14개소를 제외하면 부여, 태안, 서천이 24개소로 충남도내에서 어린이집의 수가 최하위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마저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정원을 다 채우지 못해 대다수 어린이집이 운영난에 처해 있습니다. 최근 10년간 올해까지 6개소의 어린이집이 폐원하였고 보육교사 등 30여 명의 일자리가 사라졌습니다.

같은 기간 새로 생긴 곳은 1곳에 불과 합니다. 본 의원이 파악해본 결과 현재 폐원은 하지 않았지만 휴원을 하고 있거나 앞으로 폐원을 고민하는 어린이집도 존재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결국 저출산과 아이들의 감소에 따른 것으로 경영난에 허덕이다 문을 닫게 되는 것인데, 혹자들은 경제 논리를 내세워도내 최하위에 지나지않는 어린이집 수에도 불구하고 그 수를 더 줄여야 한다고 합니다.

어린이집의 계속된 폐원은 결국 우리 아이들에게 다양하고 근접한 곳에서의 보육을 받을 기회를 계속 감소시키는 것이며, 보육교사 등의 일자리가 사라져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 지역을 떠나야 하는 상황을 양산하게 됩니다.

상황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의 보육

시설에 대한 지원은 역시 최하위 수준입니다. 도내 많은 자치단체에서 보육환경 개선을 위해 어린이집에 냉난방비, 안전공제회 보험료, 현장학습비 등 운영경비와 환경개선비, 지역농산물 지원 등은 물론이고 원장과 기타교사, 운전기사 등의 처우개선비 등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보육교사 처우개선비와 명절 휴가비로 1억 4,500여 만 원을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열악한 처우와 환경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기대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처음 교육이 이루어지는 보육시설의 보육환경을 개선해 질 높은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서천에서 자란다는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군수께서는 보육환경 개선을 할 의지가 있는지 묻겠습니다.

다음으로 군수께서는 우리 군 발전을 위한 새로운 전략으로 국립생태원, 국립해양생물자원관, 국가생태산업단지과 연계한 특구를 지정할 용의가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는 장항의 갯벌을 매립해 조성할 계획이었던 장항군산국가산단을 포기하고 84만 평의 내륙산단과 생태원, 자원관 등 국내 최대 규모의 국립 연구기관을 2개나 유치하는 정부대안사업을 받아들였습니다.

10여 년이 지난 지금, 2개의 기관은 각 분야의 연구성과를 토대로 정착해 가고 있으며 생태산단은 1단계 부지에 10여 개 기업이 가동중에 있거나 착공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항공보안장비인증센터를 유치함으로써 연계된 산업 분야의 전망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긍정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2개의 연구기관에서 이루어지는 연구성과가 우리 군과 연계되어 농어업 등에 활용되거나 또 다른 산업화에 소재가 되어 생태산단의 기업유치와 2차·3차 연구기관 유치로 이어져야 하는 시너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군과 정부간 협의를 통해 이루어진 서천군 발전 정부대안사업의 본연의 취지가 퇴색되어가고 우리 군을 포함해 각 기관간의 협력과 공조도 매우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은 2개의 국립연구기관을 적극 활용하기 위한 노력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본 의원은 정부대안사업의 취지를 살리고 정부차원에서 미래를 위한 특화된 산업분야로서 ‘생태산업’이 정부의 국립 연구기관과 연계해 전국에서 유일한 국가생태산업단지인 장항에서 특화될 수 있도록 ‘특구’를 지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특구의 지정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 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이른바 지역특구법에 의해 지역특성에 맞게 선택적으로 규제특례 등을 적용함으로써 지역의 자립적이고 지속적인 성장기반을 구축하여 국가균형발전과 지역의 혁신적이고 전략적인 성장에 기여하도록 지역특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연구개발 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이른바 연구개발 특구법에 의해 그 지역에 있는 대학·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상호협력을 활성화하며,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및 창업을 지원함으로써 국가기술의 혁신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연구개발특구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특구를 지정함으로써 국립 연구기관과 생태산단의 인프라와 연계한 연구소, 관련 기업, 나아가 생태해양 분야의 특수대학원대학의 유치 내지 신규 설립 등 명실공히 대한민국 해양·미래생태 분야의 메카가 가능할 것이라 확신합니다.

물론 현재 제도 하에 특구에 대한 직접적인 재정·세정 지원이 없는 것은 아쉬움이 있으나 최근 국회에서 이에 대한 보완을 담은 법률을 발의하는 등 개선의 여지가 충분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본 의원은 우리 군의 여건에는 연구개발 특구가 적합할 것으로 판단되나, 지역특구를 포함해 특구의 지정 전략과 기대효과를 면밀히 분석해서 특구가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실 것을 제안 드립니다. 이에 대한 군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본 의원의 마지막 질문은 우리 군의 오래된 숙원인 대학의 유치와 관련된 것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7월에 열렸던 우리 군의회 제 283회 임시회에서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중 한국폴리텍대학 해양수산캠퍼스 유치와 관련해 질문을 드렸습니다.

결과적으로 말하면 5년째 지지부진한 폴리텍대학 유치에만 매몰되지 말고 대학유치 전략을 다양화하라는 주문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언론과 주민 사이에서 본 의원이 ‘폴리텍 대학을 포기해라’라고 했다면 폴리텍 유치를 방해한다는 비난이 있기도 했습니다.

본 의원은 다시 한번 명확히 군수와 집행부에 말씀드립니다. 저는 폴리텍대학을 포기하라 주문하지 않습니다. 다만 폴리텍에 온 행정력을 소진하지 말고 다양한 대학유치 전략을 세워 접근해줄 것을 당부드리는 것입니다.

이와 연계해 우리가 유치하고자 하는 폴리텍대학에 대해 정확히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폴리텍대학은 과거 기능대학법에 의해 설립되었던 기능대학에서 명칭을 바꾼 것으로 기술 중심의 실무기능 인력을 양성하는 고용노동부 산하의 특수대학입니다. 각 분야의 기술을 특화해 평생기술을 토대로 평생직업인을 양성한다는 취지의 대학입니다.

폴리텍대학 홈페이지 등에 게시되어 있는 설립목적에도 ‘취업을 희망하는 청소년, 고학력 미취업자, 실직자 등을 대상으로 기능인력을 양성함’이라고 표방하고 있듯이 일반적인 대학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군은 생태원과 해양생물자원관이라는 두 개의 국립연구기관을 갖고 있습니다. 두 개의 기관은 다양한 생태와 해양생물 분야의 연구자들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다들 주지하시다시피 현재 우리 대학 환경에서 이공계열이 인기가 없어서 관련 학과들이 학생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따라서 생태원, 자원관과 같은 연구기관들도 연구자들을 찾기 어려운 형편입니다.

현재 교육부에서는 학령기 연령층의 감소로 신규 대학을 인가하고 정원을 확대하는 것에 반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대학은 고등학문과 연구를 기반으로 새로운 학문 분야를 개발하고 시대에 부응해

나가기 위한 변화를 추구합니다.

대학 인가의 당위성에서 생태원의 다양한 생태학과 해양자원에 대한 수요와 중요성은 갈수록 확대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특수한 요구가 맞아 떨어진다면 교육부와 정부를 설득시키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 최근 전남 나주에서는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를 교명으로 하는 신규 대학의 인가를 받기 위한 마지막 단계에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나주 혁신도시는 한국전력공사 본사 등이 입주해 있어 이와 연계해 ‘에너지공학부’ 공학계열 단일학부만 개설돼 대학과 대학원 모두 단일학부로 학생을 선발하는 것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뿐 아닙니다. 우리 군이 속해 있는 충남은 서해안을 중심으로 해양수산분야의 비중이 대단히 높은 곳입니다. 전북, 전남, 경남, 부산, 강원 등 대부분 해안가를 접하고 있는 지역의 대학 중 해양관련 학과가 없는 곳은 충남뿐입니다.

충남대에 해양학과가 있지만 충남과 대전이 분리된 이후 충남대가 충남까지 커버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폴리텍대학 수준의 직업기술 인력을 양성하는 대학이 아닌, 실질적으로 해양수산분야의 전문가를 양성하는 대학을 지역의 국립대인 공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명분과 가능성에서 충분하다 할 것입니다.

그밖에 최근 한산의 삶기술 학교와 같이 기존 제도권 대학과 다른 형태의 ‘대안대학’도 전국적으로 확산된 대안고등학교 졸업생들을 유치하기 위한 전략으로 효과적이고 특히 지역의 농업, 문화예술, 지역개발 등 특성화한 비정규 대학도 얼마든지 달라진 사회의 변화를 반영하기에 가능하리라 판단합니다.

군수께서는 대학이 지역에 왜 필요한지, 연계되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새롭게 요구되는 대학의 패러다임은 무엇인지 재점검하고 이에 맞는 다양한 대학 유치전략을 펼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장시간 본 의원의 질문을 경청해주셔서 감

사합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나학균

조동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현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현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나학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코로나19 확산방지 등 군정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애쓰시는 노박래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평소 군정에 관심을 갖고 참석해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첫째, 해양수산물 조직 확대 검토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2013년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해양수산부가 다시 설치되고, 충남도는 환황해 경제시대 비전을 갖고 해양수산물국을 부활시켰으며, 인근 보령의 경우 해양수산물관광국으로 해양정책과와 수산물과를 두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군의 해양수산과는 해양수산 산업의 육성보다는 규제를 위한 소극적인 부서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최근 조직개편안에 수산정책팀에 속해있는 어업지도업무가 별개의 팀으로 분리된다는 개편안에 대해서 어업지도선 업무의 독립성 강화라는 차원에서 환영을 합니다.

다만 최근 들어 해양산업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대처라고 보기에는 부족함이 많습니다. 우리 군의 특성에 맞는 해양수산정책을 실행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조직이 탄탄해야 사업 또한 추진력 있게 진행되어 질 수 있다고 봅니다. 해양산업이 지역 경제를 견인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군의 특성에 맞는 행정이 가능하도록 해양수산과의 인원 확충 및 팀조직의 추가 확대가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둘째, 서면 송전선로 및 전신주 지중화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화력발전소의 존재만으로도 건강에 대한 위

험요소로 걱정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죽음의 그림자’로 불리는 송전선로의 전자파가 주변마을의 주민들에게 암 등의 원인물질로 작용한다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도심의 전신주가 도시미관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보행권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최근 국가정책에서 송전선로에 대한 관심들이 높아가고 있으며, 인근 군산시에서도 280억 규모의 ‘동군산 송전선로 지중화사업’의 완공에 이어 최근 70억 규모의 ‘서군산 송전선로 지중화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수의 지자체에서 송전선로 뿐만 아니라 전신주 지중화사업에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전선 지중화사업은 재정여건이 열악한 우리군의 입장에서는 절반이나 되는 공사비를 부담해야 하는 추진이 어려운 사업인 반면, 전선 지중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다른 지자체에게는 절반을 부담해서라도 꼭 추진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이처럼 각 지자체의 추진의지가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와 한국전력공사와의 끝없는 전선 지중화사업 협상의 과정에서 주민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담당 부서의 꾸준한 관심을 부탁드리며 현재 진행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셋째, 공공성 확보를 위한 공공의료원 유치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9월 보건복지부 소속 기관인 질병관리본부가 중앙행정기관인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되었으며, 또한 공공의료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고조되어가고 있습니다.

정부의 공공의대 설립정책으로 일부 충남 소재 대학들이 의대 설립유치를 위한 경쟁에 나서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인구 1,000명당 지역별 의사 수는 충남이 1.5명으로 전국 광역자치단체 17개 시·도에서 14번째로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그중에서도 우리 군의 의료 체계는 더더욱 열악한 상황입니다.

과거 우리 군에서 심도 있게 검토되었던 공공의료원에 대하여 많은 여건이 변화하고 있

는 상황에서 다시 한번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건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시길 요청드리며, 우리 군의 대응의지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넷째, 효율적인 문화재 보존관리를 위한 문화재기금 신설 검토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군은 건지산성, 장암진성, 남산성, 서천읍성, 한산읍성, 비인읍성 등 많은 문화재가 존재하나, 이에 대한 관리가 예산부족 등의 이유로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문화재가 방치되고 문화재 주변 지역에 장기 민원이 발생하는 등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문화재는 발굴조사에서부터 토지매입, 문화재 복원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사업으로 제때 예산이 투입되지 않으면 사업추진이 어렵습니다.

또한 문화재 예산은 다른 예산과 달리 그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자칫 예산확보에 소홀할 수 있어 필요 예산을 기금으로 확보하여 제때에 예산을 집행하였으면 합니다.

이에 문화재기금을 신설하여 문화재 예산을 관리하는 것이 가능한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섯째,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정주여건개선에 있어 중요한 부분이 교육환경입니다. 교육여건이 더 좋은 곳으로 떠나는 이유이기도 하며 우리 군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 교육 환경개선에 노력을 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또한 교육지원청은 교육문제와 관련한 우리군의 협력대상입니다. 지난 제284회 임시회 5분 발언에서 제시한 ‘서천읍 중학교 통폐합’이 필요하다고 하는 경우 무엇보다 지역사회의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단기간에 결정할 수 있는 사안도 아닙니다. 공청회 한두 번으로 여론을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

학교의 역사와 전통도 중요하지만 서천군의 미래인 우리 자녀들이 좋은 환경에서 마음 편히 공부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리 군의 교육예산에 대한 투자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반해 예산의 실효성 부분에서 다소 미흡하다는 지적 또한 이와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서천군과 교육지원청 그리고 서천군민 모두가 지혜를 모아 수많은 논의와 검토를 거쳐 합의에 이르러야 할 사안입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와 교육예산에 대한 검증의 경우도 교육지원청과 인근 학교와의 꾸준한 소통으로 필요예산이 적절한 부분에 사용되었는지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여섯째, 골프장 신규 유치 추진 현황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전북 부안군이 격포 군유지에 골프장을 건설하기 위해 공유재산 관리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는 없는 리조트까지 갖춘 부안군에서 골프장 건립에 직접 나서고 있다는 점이 시사하는 바가 큼니다.

부안군이 골프장 유치를 제안하는 이유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관광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복합관광단지 개발사업을 추진하여 인근 지자체들과의 경쟁에서 서해안권 해양관광산업을 선점하고자 함입니다.

인근 지자체와의 경쟁에서 제대로 된 리조트 하나 없는 우리 군의 경쟁력은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또한 골프가 과거 부자들이나 하는 사치성 체육시설이라 치부하기에는 현재 시대적 분위기에도 다른 지자체의 적극적인 유치행보와도 괴리가 있습니다.

우리군은 여러 해 동안 관광호텔, 리조트 유치를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금강하굿둑 호텔부지와 동백정 서천화력 폐부지가 대표적인 곳인데, 이 사업들이 어려움을 겪는 이유 중 하나가 관광기반시설 부족입니다. 그 대안 중 하나가 골프장입니다.

인근 시군과 달리 우리군은 골프장이 없습니다. 골프장시설은 규모나 운영면에서 지자체가 협조하지 않으면 힘든 사업입니다.

골프장 사업은 관광사업에 있어 리조트사업과 주변 관광지 사업에 꼭 필요한 기반사업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가 지배적입니다. 현재 골프장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일곱째,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방안 마련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군의 공유재산은 각 실과와 읍·면에서 관리되어지고, 총괄부서인 재무과에서 관리 감독을 하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관리가 미흡하다는 의견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총괄부서에서 공유재산에 대하여 현지 실태 조사를 거쳐 목적 외 사용과 불법 시설물 설치, 무단점유 등 위법사항에 대하여 확인하고 조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행정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유휴재산은 적극적인 대부와 매각 등 다각적인 활용방안을 검토하여 군민들에게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공유재산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군민 모두의 재산인 공유재산이 공익에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항상 관리하며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향후 효율적 관리 방안 마련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여덟째, 판교 한우 관련 사업 검토 및 한우지원사업 현황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1980년대 중반까지 충남의 3대 우시장으로 명성을 떨치던 판교 우시장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서천군의 한우산업에도 꼭 필요한 사업이라 생각합니다.

2017년 3월 개장한 충남 보령 한우 경매시장이 한우 유통체계 개선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근 지역으로의 이동에 따른 운송비 부담이나 이동 스트레스에 따른 감량 해소, 우리군의 우수한 한우를 브랜드화 하기 위해서도 우시장 신설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한우경매시장은 수익사업이 아닌 축산농가의 공익을 위한 환원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지역 축산 농가를 위한 한우 경매시장 신설이 가능한지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군수님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나학균

이현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군정질문은 모두 끝났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정회)

(13시59분 속개)

○의장 나학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노박래 군수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강신두 의원님, 조동준 의원님, 이현호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노박래

존경하는 나학균 의장님! 그리고 강신두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도 계속해서 군정에 많은 관심과 열정을 갖고 질문을 해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의 군정에 대한 질문을 통해서 나타난 문제점들과 제시된 대안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연구·검토하고 실질적으로 군정 전반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그러면 의원님들의 질문순서에 의거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3쪽입니다. 먼저 강신두 의원님의 질문입니다.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서면 도둔지구 연안정비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도둔지구 연안정비사업은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해수부에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건의한 결과, 아시는 것처럼 금년 6월 제3차 연안정비 기본계획에 최종 반영되는 성과를 얻었습니다. 그동안에도 의회 의원님들의 관심과 특히 강신두 의원님의 지원으로 많은 고마움을 표시하고 싶고요.

도둔지구는 확정 사업비가 243억 원으로 그동안 200억 원 이상 사업은 국가사업으로 추

진되는 걸로 정해져 있었습시다만, 이번에는 기재부에서 제3차 연안정비기본계획 대상 사업 중에 200억 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시행기준을 수립토록 조건부 승인을 한 상태라서 현재 해수부에서 별도의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도둔지구가 국가시행기준으로 검토되어서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마지막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기존 서래야단지 외 9개 읍·면단지 추가지정과 관련하여 서래야 서브 브랜드 구축에 대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군은 농업소득의 65%를 쌀 농업에 의존하는 미작중심의 군으로서 고품질 서래야 쌀 생산단지 조성을 통해서 다수확 위주의 농업에서 탈피하여 고품질 친환경 정책으로 서천 쌀의 체질을 개선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현재 서래야 단지는 미질 관리와 친환경농업 특성상 토양과 용수 관리가 원활한 20헥타이상의 집단화된 농경지에 한해서 단지를 지정해왔고 경작농가의 동의를 받아 서천과 마서, 화양, 기산에 주로 30개 단지, 925헥타를 조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서래야쌀은 미질관리와 영농관리의 어려움이 커서 당분간은 브랜드 이미지를 높이는 데 치중하고 추후 4개 읍·면 외에도 서래야단지 조건이 부합된다면 단지 지정을 확대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서래야 브랜드 외에 한산면의 보람찬 단지처럼 다양한 소비층을 겨냥한 서브 브랜드 출시를 위해서 내년부터 친들벼-친들은 종자 이름이쥬-친들벼 재배단지 조성을 추진코자 서천통합 RPC와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사업에 대해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건은 아직 확정적인 답변드리기는 어렵지만 현재 추진 되고 있는 내용을 말씀을 드립니다.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사업은 사업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민·관이 다 공감하는 사업이고 그에 따른 사업장 위치와 규모, 운영주체에 대해서 정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업이라

고 생각 합니다.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사업의 추진방식에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의 공모사업, 민간업체 위탁 등 3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현재는 서천축협이 환경부 공모방식을 준비하고 있고 일부 민간업체도 희망하는 내용이 거론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무엇보다 적절한 위치, 악취저감방안, 최근에 선진기술 도입 등 우리군에 적합한 방안을 세밀하게 검토해서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개인적 의견으로는 민간은 수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공공기관, 공영방식이 저는 합당하지 않은가 이렇게 개인적인 의견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국에너지재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에 대해서 질문 하셨습니다.

우리군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은 올해 9월 기준 669가구를 추천하였고요, 이중에 358명의 지원이 확정되어서 당초 목표가구인 300가구 대비 약 120%를 달성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만, 지적해주신 대로 일부 직원들이 나태하고 미흡한 적극적이지 못한 부분도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업무담당자에게 책임성과 사업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주지시키고 읍·면별로 사업실적을 지속 점검해서 에너지효율 개선사업을 통해서 저소득층의 주거복지가 더 나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말씀하신 공무원 1호봉 특별승급 대상은 열심히 일한 공무원과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경진대회 수상자 중에서 추천하는 방안도 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등산로 주변 각종 시설물 및 마을 야외 운동기구 관리방안에 대해 질문 하셨습니다.

전 시간에도 이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계셨습니다만 역시 올해 문수산과 건지산, 왕개산, 월명산 등 등산로 정비사업에 3억 3,7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등산로 숲길 조성과 목계단 설치, 돌계단 정비 및 안내판 교체 등을 시행하여왔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등산로 주변 각종 시설물과 마을 야외 운동기구 등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저도 동감하는 바입니다.

앞으로 등산로 주변 및 마을 운동기구와 의자 등 각종 시설물에 대한 전담부서 지정과 전수 조사를 일제히 실시하겠습니다.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검토하고 전산입력을 해서 언제나 그 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해서 이용자가 쾌적하게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군유림 활용방안과 소방도로(임도) 관리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판교면 상좌리 산 104번지 일원의 군유림은 산림보호 구역으로 지정되어서 산림경영을 위한 벌채와 숲가꾸기 산림 사업, 일부 공공시설을 제외하고는 산지전용 등이 제한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산림보호구역의 지정목적은 달성해서 계속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 한해서 산림청 중앙산지관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해제 받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매우 엄격히 관리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산림보호구역을 해제할 수 있는 후적지 개발에 대해서도 검토토록 하겠고, 이게 기한이 있는 거기에 기한이 만료되면 우리 군이 의회와 협의해서 이 건에 대해서 우리군이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인 성산 방향의 임도는 현재 일부 노면이 고르지 못하고 저도 어찌다 한번씩 가보지만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으므로 내년 임도 보수사업 대상지로 선정해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조동준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학교체육 지원확대와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재 우리군은 학교체육 육성을 위하여 초·중·고 청소년 체육 진흥사업과 학교체육팀 육성 지원사업, 유소년 체육 지원사업 3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초·중·고 청소년 체육진흥사업은 서천교육지원청과 협력하여 육상과 탁구, 수영, 역도, 족구 및 세팍타크로 6개 종목의 동·하계 훈련과 대회 출전, 체육용품 등을 지원하여 왔습니다.

또한, 학교체육팀 육성지원 사업은 장항고의 족구부와 서천여고의 세팍타크로 팀을 지원하고 있고요. 토요일스포츠 강좌와 유소년 체육 지원 사업으로는 축구교실, 유도교실, 검도교실 등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예산의 한계로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에 어려움이 있긴 하지만, 안정적인 지원금 확보를 위해서 각종 공모사업을 적극 활용하고 교육지원청, 체육회와 협업을 통해서 사업을 늘려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양한 종목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문 체육지도자가 학교 정규수업 시간에 ‘찾아가는 학생체육교실’을 운영하고 관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가상현실 스포츠실 설치 사업’ 등을 의원님 말씀과 같이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출산장려정책 실효성 증대 방안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요. 금년 9월 기준 출생은 145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9명 증가했으나, 조출생률은 지난해 기준 3.3명으로 전국 평균 5.9명, 도내 평균 6.3명보다 낮은 편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임신부와 신생아 의료비 지원, 출산장려금과 아동 돌봄 등 24개 사업에 20억 원 규모의 저출산 극복지원책을 실시하여 왔고 그 성과는 그리 크지 않았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이에,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따라서 둘째와 셋째에 비중을 두어서 출산장려금과 아울러서 임신부, 영유아 의료비 지원 등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자녀를 고려한 주거비 지원, 여성 직업훈련과 취업연계, 돌봄공간 확충 등 생애주기별 지원 서비스를 강화해서 ‘함께 돌보는 지역사회’를 구축하여 출생률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가기 전에 말씀드린 바 있지만, 어제는 양승조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 그리고 관계자들, 서천교육장, 저 이렇게 해서 한

산돌봄센터를 도의 시범사업, 도의 아주 잘된 사업으로 평가하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운영하면서 늘려나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데 의견이 모아졌고요. 또 지역주민들 의견도 많이 청취하고 상당히 좋은 방안으로 지금 검토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다음으로는 드론 활용성 제고와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드론의 활용성을 제고하고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현재 우리군은 내년도에 개정되는 드론법에 대비해서 서천군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 제정을 준비하여 왔고 직원들의 드론 자격증 취득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안전한 드론 운영을 위해서 관내 드론보유자들을 상시 교육할 수 있도록 비대면 교육영상 제작과 그리고 교육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중에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또한 경찰서와의 MOU체결을 통해서 위급상황 발생 시에 군이 보유한 실시간 드론영상 중계시스템을 이용하여 기관 간 정보를 공유하여 군민 생명과 재산보호 등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추후 소방서, 교육청 등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약을 계획 중이며 드론을 통한 지적측량, 고정밀 영상촬영을 통한 재조사지구 현장조사, 고해상도 디지털 지적정보 구축 등 다양한 공간정보 분야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산불 드론 감시대를 운영하여 산불감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이를 통해서 산불의 예방과 신속한 진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춘장대 해수욕장 내 위급상황 발생 시에도 드론을 활용한 구조와 마을 항공사진 제작 등 앞으로도 드론에 대한 활용성을 제고하고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필요시 드론 활성화 종합대책도 말씀대로 수립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보육환경 개선을 위한 보육시설 지원 확대를 강조하셨습니다. 현재 우리 서천군에는 국공립 3개소, 사회복지법인 10개소, 법인단체 4개소, 민간 4개소, 가정 2개소 등

총 23개의 어린이집이 있고 836명의 영유아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저출산으로 인해서 지역 내 5세 이하 아동수는 작년 말 1,274명에서 올해 9월 1,176명으로 감소하였고, 이에 따라 어린이집 이용 아동수도 감소해서 관내 어린이집 정원 충족률은 60.5%로 전국 평균인 75.4%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보육환경 개선과 관련해서는 매년 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어린이집 개보수와 장비구입 비용을 지원하고 있고, 금년에도 9개소의 어린이집 보육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3억 4,200만 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일선에서 고생하는 원장과 보육교직원을 위해서 국비지원사업으로 어린이집 운영을 위한 정부지원 인건비 등에 연간 21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충청남도 특수시책으로 보육도우미 인건비 지원 등에 연간 7억 9,4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우리군 자체사업으로는 보육교사 처우개선비와 종사자 명절휴가비, 종사자 워크숍, 누리과정 체험축제 비용 등을 충남어린이집연합회 서천군지회를 통해서 지원하고 있고요.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과 안전한 보육환경을 위해서 노력해오고는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보육시설과 보육교직원의 근무여건 개선에 지원을 확대하고, 의원님 말씀처럼 장기적으로는 줄어드는 원생과 시설노후로 폐원되는 상황을 고려하여 내부적으로는 전체 보육시설의 운영 관리체계를 개편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생태산업 특구지정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국가 정책에 부합하고 우리 지역이 갖고 있는 인프라를 극대화한 특화산업 육성이 우리군의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 우리군에서는 충남도, 국립해양생물자원관과 공조해서 해양바이오 인큐베이터 건립 사업을 진행 중에 있고요. 충남테크노파크와 해양바이오기업 유치에 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역 인프라와 연계한 미래 지향적인 해양바이오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정부에서는 지역 혁신산업의 육성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 규제자유특구와 지역특화발전특구를 운영하고 있으나, 특구 지정에 따른 상승효과와 개별법에 따라 제한되는 한계가 병존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군의 생태 인프라와 연계한 산업 여건, 특구지정의 효과와 한계, 재원조달 방안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타 지역 사례와 전문가 및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신중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는 대학 유치 전략 다양화를 기하자는 그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폴리텍대학 해양수산캠퍼스는 이미 국비 54억 원을 확보한지가 상당히 됐습니다. 건립 부지 등 사업추진을 위한 준비도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대학 진학생의 지속적인 감소로 인해서 예전과는 달리 설립과정에서 최종적으로는 교육부의 설립인가를 받아야 하는 부분이 추가되어 지연되고 있다는 말씀도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조속히 교육부의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폴리텍 대학 법인측과 공동 대응해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노력하여 왔습니다.

폴리텍대학 이외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학유치 전략 다양화 방안에 대하여도 관계 기관과 협의하거나 의회에서 주시는 말씀도 열심히 우리가 챙겨서 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이현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해양수산물 조직 확대의 필요성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최근 해양 신산업 육성에 대한 중앙정부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우리 또한 장항산단에 해양관련 인큐베이터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수산업의 미래 산업화 등 다양한 시대의 변화요구에 따라서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해양수산물 관련부서의 기능 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해양수산과의 조직개편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런 정책에 따른 것 보

다는 당장은 어업지도선 업무를 분리해서 어업지도팀으로 격상하고 수산정책팀의 정책기능을 강화하는 것으로 우선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이렇게 하면 앞으로 수산정책팀은 해양치유산업과 해양 신산업 육성에 적극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에서 추진 중인 해양바이오 클러스터 조성사업과 신규 행정수요를 감안해서 조직 확대나 및 인력 운용을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서면 송전선로 및 전신주 지중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신서천화력 송전선로는 연장 28.3km, 첩탑 91개소, 송전 전압 154kV의 서천화력 전용선로로, 청양변전소를 통해 충남 지역에 전력을 공급하는 국가기반시설입니다.

서면 송전선로 사업은 지난해 법률 자문과 유관기관 협의 등 사업을 검토한 결과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꼭 필요한 우리군의 지역현안 사업으로 지역 국회의원과 중앙정부, 충남도에 건의하는 등 다각적으로 사업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고요. 지역 주민과 소통채널을 유지해서 앞으로 사업이 적절한 방향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22.9kV 일반 전신주 지중화사업은 2025년까지 정부에서 전국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타당성 조사와 지역여론 수렴,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통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의료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 공공의료원 유치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재 충남도내 공공의료시설은 천안과 서산, 공주, 홍성 지역에 도립의료원이 있는 것은 의원님들도 잘 아시고 있는 상황이고 보건의료원은 청양과 태안에 설립되어 있습니다.

공공의료원 설치에 따른 운영비 최소화를 위한 인구수는 최소 20만이 되어야 한다고는 합니다. 우리 군 인구수는 굳이 강조할 필요는 없지만 인근 시군과의 연계권역을 설정한다고 해도 공공의료원을 유치하기엔 버거운 형편입니다.

우선 전문의사 및 간호사 채용 등 인력 확보에 가장 큰 어려움이 있고, 두 번째로 이러

한 공공의료원을 운영하기에는 저희들이 짐작한 바로는 상당한 운영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지원금은 지역 응급의료 기관에 대해서만 지원되고 있고, 연 15억 원 정도의 운영비를 지방비로 충당해야 하는 실정으로 도내 공공·보건의료원도 매년 적자 운영 중에 있는 것은 알려진바와 같습니다.

또한, 우리 군민이 이용하는 실질적인 의료권역은 군산 지역이고 승용차로 20여 분, 그리고 익산 40여 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중증환자 치료 이용거리는 도내 병원보다 가까워서 관내 공공의료원이 설립되어도 사실상 이용환자 수는 그리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같이 운영 적자 보전금 지원과 인력확보의 어려움, 지역 내 이용 환자 부족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예상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군 공공의료원 설립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고 소규모 건립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병행해서 신중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효율적인 문화재 관리보존을 위해서 문화재 기금을 신설하면 어떻냐 하는 질문이십니다.

우리 군에는 43개의 문화재가 있고 보존 관리와 다각적 활용을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매년 문화재 발굴과 보수, 풍수해로 인한 피해를 복구하는 데 많은 예산이 수반되고 있어서 국·도비 보조금에 많이 의존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문화재사업은 비인습성이나 한산습성 이런 사례에서 본 것처럼 국비나 도비지원이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도 현재 상황입니다. 앞으로 문화재의 지속가능하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원확보가 필수적인 상황입니다.

기금은 안정적인 자금과 탄력적인 집행이 필요하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로 사업을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별도로 설치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기금과 타 지역 문화재 예산 운용사례 등을 적극 검토하고

우리군이 어떤 규모, 어떤 모양으로 가는 것이 적절한지 예산운용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서천군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도·농간 교육격차 해소와 교육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서림학당 운영 등 20여 개 사업에 21억 원 상당의 사업비를 매년 교육경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적정성과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점검하고자, 예산 편성 시 각 학교 등 수요처를 대상으로 교육사업에 대한 수요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및 교육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사업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그리고 실적보고서에 의한 정산검사와 만족도 조사를 근거로 해서 사업의 성과평가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 내 학교와 교육지원청과의 협의를 통해 현재 지원하고 있는 사업에 대하여 적극적인 피드백을 실시하고, 교육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다양한 교육사업이 충분히 지원될 수 있도록 타 지자체 선진사례 등을 적극 검토해서 교육환경에 도움이 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쪽, 골프장 신규 유치현황에 대해 질문을 하셨습니다. 가족레저형 친환경 골프장 유치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민선7기 공약사업이기도 합니다.

친환경 골프장 유치를 위한 TF팀을 구성·운영해서 지난해 골프장 입지가 가능한 지역에 대해서 타당성 검토도 마친바 있고요.

현재 개발방식에 대한 타 지자체 사례와 관련 법령을 검토해서 우리군에 적합한 방식으로 추진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현재 실무팀에서는 희망하는 업체와 여러 가지 논의도 하고 있고 타 지역 사례도 구체적으로 수집 중에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무엇보다 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지역주민들과 많은 군민들의 폭넓은 이해와 지지가 전제되어야 되는 부분도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서천군의

새로운 동력으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국민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방안 마련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우리군 공유재산은 토지, 건물 등 총 2만 1천 건으로 행정재산은 각 사업부서에서 관리하고 일반재산은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의원님들께서 아시는바와 같습니다.

매년 공유재산 실태조사 계획을 세워서 관련 공부 자료를 정비하고 있고 현지조사를 통해 무단점유 또는 현황 등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행정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유휴재산에 대하여서도 실태조사를 통해서 대부과 매각 등 추후 다각적인 활용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사실상 균유지나 국유지 이런 재산 등에 대해서 대처 관리를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세밀하게 적시에 다 체크되지 못한 부분도 지적하신대로 있다고 인정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실무진이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공유재산 실태조사 지원 사업’을 추진해서 조사와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공유재산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판교 한우 관련 사업 검토 및 한우 지원사업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판교 우시장은 1900년대 초부터 판교 현암리에서 운영되어 오다가 80년대 중반 판교리로 이전한 후에 한때 번성하였으나 90년대 중반부터 쇠락해서 2004년에 서천축협에서 부지를 매각한 후 폐쇄되었습니다.

우시장이 활성화되려면 군 자체 사육두수와 매매량이 많아야 하나, 우리군은 1만 2,500두 정도 되고 보령은 4만두, 부여는 5만두에 비해 사육두수가 적고, 매매량도 월 200두 미만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인근 지역인 부여와 논산, 보령, 홍성, 익산에 우시장이 있어서 활성화가 어려울 것이라는 부분도 있고 이에 따른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한우지원 사업으로는 한우개량, 명품브랜드 육성과 한우기자재 지원 사업 등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한우 농가의 사육 의욕 고취를 위해서 현대화 사업 등 중장기 육성 계획을 수립하는 등 축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면 일부에서는 판교 우시장 개장을 주장합니다. 저도 홍산에 있는 우시장을 두세 차례 새벽에 갔다 온 적이 있고요. 지역 우시장에 출입하는 사육농가와 중개인들 얘기도 두어 차례 들은 적이 있습니다.

현재는 다니고 들은 바에 의하면 ‘서천에 가축시장을 별도로—우시장이죠—설치하기에는 세가 부족하지 않냐’, 또 설사 초반에 지원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지속성이 적다는 의견들도 제가 들은 바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우리 관내 한우사업의 육성을 위해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신중한 검토를 더 해보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신두 부의장님을 비롯한 조동준 의원님, 이현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대략적인 답변을 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관심사항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이 많으시리라 느끼시지만 해당부서에 보충질문을 통해서 더 자세하고 확실한 답변을 드리도록 준비 해나가겠습니다.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부족한 답변에 대해서 또는 아직은 말씀 못드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의회의 간담회나 이런 기회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설명도 드리고 준비도 하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나학균

노박래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군정질문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노박래 군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서천군 의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방청하여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제4차 본회의는 10월 19일 오전 10시에 열리게 됨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산회)

○출석의원의 성명과 수

나학균, 강신두, 김경제, 조동준,
노성철, 이현호, 김아진 (7명)

○출석공무원의 직과 성명

군수	노박래
기획감사실장	한덕수
사회복지실장	노원래
투자유치과장	이정성
민원봉사과장	신언달
자치행정과장	이성구
재무과장	박범수
관광축제과장	구승완
문화진흥과장	한무협
농정과장	박명수
산림축산과장	김영완
지역경제과장	노희량
환경보호과장	구충완
해양수산과장	김진호
건설과장	조남용
도시건축과장	정해순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상병
맑은물사업소장	정춘길
공공시설사업소장	황인귀
체육시설사업소장	이대철

○의회 출석공무원의 직과 성명

의회사무과장	정진형
수석전문위원	전중석